

<2015년 8월 2일 주일말씀> (생각 2편)

## <말의 능력>을 받아라 <생각>에 대해 깨달아라. <생각>은 ‘신(神)’이다

본 문 잠언 4장 23절

마태복음 22장 37-40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.

오늘도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니,

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지난주에는 <생각>에 대해서 말씀했지요?

‘매일 <생각>을 온전히 하고, 사탄과 악을 대적해라.’ 했습니다.

◎ 앞으로 2주 더, 주일말씀으로 <생각>에 대해 말씀하며

수련회 기간 동안 <생각>에 대해 총 세 편의 말씀을 줄 것입니다.

◎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

‘생각에 대해 깨달아라. 생각은 신(神)이다.’ 입니다.

<생각>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

‘말의 능력을 받아라.’ 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

- ◆ 오늘 말씀은 너무도 깊고 신비하고 좋습니다.

그런데 받아서 쓸 때 어려웠습니다.

왜냐하면 <글>로 쓰면, 실감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.

- ◆ <글>은 ‘전달하는 데 있어서 최하위의 수단’입니다.

<행동>으로 직접 보여 줄 때 최고로 이해가 잘되고,  
생각에 확 와 닿고, 전달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.

가령 ‘폭탄’ 이 팡 터지면

폭탄에 대한 <설명>도 필요 없고, <말>도 필요 없이

가슴에 쿵 하고 뇌가 찌릿하게 ‘폭탄의 위력’ 이 전달됩니다.

- ◆ 그래서 읽기만 하지 말고, 듣기만 하지 말고,

<말씀>을 읽고 들었으면 행하라는 것입니다.

<육>이 행해야 <휴거의 삶>이 실감 나고 불이 붙습니다.

그래야 가슴이 찡하고, 뇌와 생각에 불이 붙어서 탑니다.

성령의 불덩어리가 됩니다.

<육>이 행해야 <혼>도 영계에 자주 가고 차원이 높아집니다.

- ◆ 그런데 사람들은 ‘실천력’ 이 참 약합니다.

별것도 아닌 것, 작은 것을 가지고도 망기적거리며 행하지 않습니다.

독사가 물려고 쫓아와도 망기적거리고 일어나지 않을 겁니까?

행하지 않으면, 만사의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오히려 당하게 됩니다.

- ◆ <행동>으로 직접 보여 주는 것 다음으로

이해가 잘되는 전달 수단은 <말>입니다.

<말>로 들으면, 그래도 귀가 솔깃하고 가슴에 와 닿습니다.

- ◆ 고로 <말>을 할 때 실감 나게 하고, 뜨겁게 하고,  
내용에 따라 강하게, 보통으로, 약하게 조절하면서 해야 됩니다.

만일 강조한다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 괴성이 됩니다.

마치 노래하듯이 ‘강약’을 조절하면서 해야 됩니다.

또 때마다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몸짓을 하면서 말해야 됩니다.

그래야 가슴에 더 와 닿고 이해가 잘됩니다.

이렇게 설교하는 자가 ‘잘하는 설교자’입니다.

- ◆ 이렇게 안 하면, <말씀>을 ‘글’로 전달한 것보다도 못합니다.

그러니 듣는 자들이 <말씀>을 실감하지 못하고,

가슴 찡하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,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합니다.

<글>로 어렵게 ‘말씀’을 받아서 써 주는

선생의 마음이 참으로 답답합니다.

그러니 이렇게 안 하는 설교자가 있으면,

꼭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 줘요.

답답한 것들을 바로 고쳐 주겠습니다.

- ◆ 아무리 <깊은 말씀의 글>이라도  
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<말>로 전달을 잘해 줘야 됩니다.

그냥 노인이 책 읽듯이 읽거나,

혹은 빨랫줄같이 굴곡 없이, 높낮이 없이, 강약 없이 전하면

100% 중에서 30%도 **말씀의 감**이 안 오고 **실감**이 안 납니다.

고로 교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, 성령이 식어 버립니다.

◆ 교역자의 실력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?

곧 <말씀>을 실감 나게, 뜨겁게, 심정 있게 잘 전하고  
성령의 불과 능력을 가지고 전하여  
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.

◆ 교역자들은 꼭 ‘**생명들**’ 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.

그리고 ‘**직접 행하고 조건을 세우면서**  
**어렵게 말씀을 받아 주는 선생**’ 을 보고 노력해야 됩니다.

그리고 ‘**말씀을 주시며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**  
**삼위일체**’ 를 보고 노력해야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◆ <행동>으로 직접 보여 줄 때는 ‘가장 큰 위력’ 이 나옵니다.

<말>로 전달할 때는 ‘두 번째로 큰 위력’ 이 나옵니다.

고로 <하늘의 말씀, 주의 말씀>을 전하는 자들은  
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하여 입에서 불이 나가게 해야 됩니다.

그래야 말씀으로 **선과 악**이 쪼개지고, **사탄**이 물러가고,  
말씀을 듣는 자들이 **불**을 받고 **은혜**를 받고,  
주의 진리의 말씀이 뇌에 꽂혀 감동되어 행하게 됩니다.

그리함으로 **사탄**과 싸워 이기게 되고,

**하늘의 뜻을 이루며, 날마다 휴거의 차원을 높이게 됩니다.**

- ◆ 설교자뿐 아니라 ‘강사’도 ‘생명을 만나 대화하는 자’도 <말의 능력>을 받아야 됩니다.

섭리사에서 누가 <말의 능력>을 받아서 말을 잘하는지 보고, 자꾸 배워야 됩니다.

- ◆ 선생은 특히 단상에 서는 자들, 강의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루도 빼놓은 날이 없습니다.

그리고 기도해 주는데, 말씀을 실감 나게 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하는 자가 기도하지 않고, 노력하지 않고, 그 말씀이 얼마나 중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.

사람은 ‘알아야’ 필요성을 느끼고 행합니다.

- ◆ 사람의 머리는 약 5kg이라고 합니다.

머리를 바로 하면 목이 5kg의 무게만 받는데,  
머리를 수그러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으면  
목이 5배인 25kg의 무게를 받아서  
뒷목의 힘줄이 당겨 피곤함이 오고, 목 디스크가 생깁니다.

고로 기도할 때 고개를 수그러면  
어깨가 굳고, 피로하고, 순간 잠이 옵니다.

이것을 확실히 알면 어때요? 고개를 수그러지 않습니다.

- ◆ 사람은 ‘알아야’ 필요성을 알고 행하니,  
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

<말을 하는 자의 말의 능력>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 줬으니,  
꼭 알고 행하기 바랍니다.

- ◆ <말의 능력>을 받으면,  
<말>로 ‘성’도 무너뜨리고, ‘지진’도 나게 하고,  
‘태풍’도 불게 하고, ‘비’도 오게 합니다.

<말의 능력, 하나님의 능력>을 받은 자가 말하니,  
하나님이 ‘만물’을 명하여 행하시기 때문입니다.

- ◆ 엘리야는 <하나님의 능력>을 받아서 ‘비’가 못 오게 했습니다.  
그 시대의 아합 왕은 갖은 악행을 저지르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.

이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말하기를

“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 
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,

내 말이 없으면

수년 동안 ‘비’도 ‘이슬’도 있지 아니하리라.” 했습니다.

정말 그 말대로 되어,

그 당시 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.

- ◆ 그 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불로 응답받고,  
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물리쳤습니다.

그 후 엘리야의 말대로 다시 ‘비’가 내렸습니다.

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섭리인들은 <이 시대 최고의 말씀>을 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.  
고로 <말>을 잘해야 됩니다.

- ◆ <말>을 잘해야  
<시대 말씀>도 권세 있게, 위력 있게 잘 전할 수 있습니다.  
고로 ‘**말 잘하기 도전**’ 을 해야 됩니다.

<좋은 음식>이 있어도 잘 안 먹힐 때가 있습니다.  
이때는 ‘**더 먹기 도전**’ 을 해야 됩니다.  
그래야 먹고 건강하게 됩니다.

이와 같이 아무리 <좋은 말씀>이라도  
잘 소화되지 않을 때가 있고, 잘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.  
고로 ‘**잘 듣기 도전, 잘 전하기 도전**’ 을 해야 됩니다.

- ◆ 매일 ‘말 잘하기 도전’ 을 하면서 매일 노력해야  
<말의 차원>을 높이게 되고,  
고로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 
그 입을 ‘자신의 입’ 으로 귀히 쓰십니다.

- ◆ <말의 능력자>가 말씀을 전하면,  
청중의 마음을 용광로같이 뜨겁게 해 주고 감동을 줍니다.

- ◆ 말씀을 전할 때는  
첫째, 실감 나게 능력 있게 잘 전해야 하고  
둘째, 꼭 ‘성령의 감동의 역사’ 를 같이 일으켜야 됩니다.

- ◆ <감동>이 얼마나 무섭고 위력이 있는지 압니까?

<감동>을 주면, 자기가 스스로 막 행합니다.

고로 <성령의 감동>을 달라고 꼭 기도해야 됩니다.

그렇게도 “안 하겠다. 안 믿겠다.” 하던 사람이

<성령의 감동>을 받으니,

본인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고 행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.

- ◆ <말>을 하거나 <말씀>을 전할 때는

그냥 ‘말’ 만 하지 말고, 꼭 ‘감동’ 을 줘야 됩니다.

<감동을 주는 자>가 ‘말을 잘하는 자’ 입니다.

- ◆ 조은 부흥강사같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.

타고나기도 했지만,

자꾸 연구하면서 극적인 노력과 실습을 했기 때문에

말을 그리도 잘하는 것입니다.

- ◆ 조은 목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설교를 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
그리고 설교를 많이 하며 극적인 노력과 실습을 합니다.

그만큼 영적으로 준비하고, 기도하고,

성령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전하니 잘합니다.

또한 ‘선생의 글’ 을 정리하고 교정하면서

말씀을 더욱 깊이 보고 이해하며 매일 연구하니

<말의 프로>가 되어, <글>이 틀리면 안 되듯이

<말>도 틀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

## <잠시 쉬었다가>

- ◆ <말>을 할 때는  
상대가 잘 알아듣도록 ‘발음’이 분명해야 됩니다.
- ◆ 한번은 조은 목사가 목사가 되기 전에 같이 대화를 하는데,  
조은이는 보통으로 말하는데  
그 소리가 분명하고, 크고, 발음이 확실해서 엄청나게 들렸습니다.  
  
그래서 선생이  
“소리가 너무 분명하고 크니 귀가 울린다.  
청중도 없는데 왜 그렇게 크게 말하나.  
대화식으로 해야 상대가 잘 듣게 된다.” 했습니다.
- ◆ 그런데 처음에는 대화식으로 하다가  
조금 있으니 또 소리가 분명하고 커졌습니다.  
  
그래서 선생은 양손으로 귀를 막고,  
“이래도 네 목소리가 잘 들린다.” 했습니다.  
  
그때 “타고난 네 음성을 못 고치겠다.” 했습니다.
- ◆ 그날 기도 중에 깨달아지기를  
  
“섭리사에는 청중이 많고,  
그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, 내 말씀을 전할 일이 많다.  
  
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데 귀히 쓰면 좋겠다!” 했습니다.
- ◆ 그리고 조은이에게 말했습니다.

“앞으로 의식하지 말고 말해라.

너, 청중 앞에서 귀한 말씀 전하는 데 쓰신단다.” 했습니다.

- ◆ 그런데 아무리 들어 봐도 소리가 일반 소리가 아니고  
‘질이 좋고 성능이 좋은 앰프에서 나오는 소리’ 같았습니다.  
보통 말해서는 목도 잘 안 쉬고, 고장도 잘 안 나는 소리였습니다.

- ◆ 결국 <삼위일체가 선생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>을 전하는 데  
매우 귀히 쓰이고 있습니다.

- ◆ 조은 목사는 <말의 능력>이 있고 <심정>이 있습니다.  
거기에 <말씀의 세력과 권세>가 있습니다.  
거기에 <성령의 불>이 있습니다.

- ◆ 선생은 말씀을 수만 번 외치며 살았기에  
‘목소리의 성능’을 잘 압니다.

조은 목사는 목소리가 희귀종으로 타고난 데다가  
꾸준히 노력하고, 피하지 않고 실습을 해서 말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 
‘말씀을 전하는 데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자’입니다.

### 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선생이 하늘의 말씀을 받아서 줄 때 <글>로 써서 주려니  
표현하는 것도 어렵고 실감이 나지 않아서 늘 답답합니다.

깊은 말씀인데 실감 나게 전달이 안 되니, 답답합니다.

그래서 <그 깊은 심정의 글>을 받아서

설교자, 강의자들이 <말>로 잘 표현하며  
실감 나게, 능력 있게, 권세 있게,  
감동을 주고 불을 주며 전해 줘야 됩니다.

그리함으로 청중이 감동을 받고, 성령을 받고,  
깨닫고 행하게 해 줘야 됩니다.

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 
지금은 새 시대이니 이 시대에 합당하게 말을 하고,  
이치에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.

이렇게 하는 자가 ‘말을 잘하는 자’이며,  
이렇게 해 주는 자가 ‘정말 큰일을 해 주는 자’입니다.

<하늘의 귀한 말씀>을 ‘글’로 써서 보내는 선생이 볼 때,  
이런 것이 항상 너무 아쉽습니다.

- ◆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변호사들도 많고,  
직업상 말을 조리 있고 설득력 있게 잘하는 직업인들도 많고,  
말을 잘하는 설교자나 강사들도 많습니다.

자꾸 도전해야 됩니다.

말 잘하기 도전, 실감 나게 말하기 도전,  
능력 있고 권세 있게 말하기 도전,  
감동을 주며 말하기 도전입니다.

- ◆ 조은 목사같이 한다고  
<음성>까지도 똑같이 따라 하는 자들이 있는데,  
자기 개성을 살리면서 배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.

- ◆ 모두 기도하고, 노력하고, 연구하고,  
어떤 상황이 있어도 말하고, 설득하고, 이해시키고,  
말씀을 전하는 것을 피하지 말고 자꾸 실습해야 됩니다.

그리함으로 <말의 능력>을 받고 <말의 차원>을 높여야 됩니다.

- ◆ 선생은 우리 식구들 중에서 제일 말을 못했습니다.

<시대 하나님의 말씀>을 받았는데도  
말하는 것이 둔해서 잘 전하지 못하니 답답했습니다.

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도전했습니다.

그러니까 입이 풀어져서 말을 잘하게 됐습니다.

여러분도 도전입니다!

- ◆ 증거하는 자들이 능력 있게, 권세 있게,  
감동을 주고 불을 주며 말을 잘하도록  
선생이 쉬지 않고 기도해 주니,  
실수 없이, 후회 없이, 미련 없이 도전하고 행하여  
<달변가>가 되기를 축원합니다.

그리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 
시대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 
담대히 외치며 증거하기를 축원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◎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하고,  
<생각>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.

- ◆ <행동>으로 직접 보여 줄 때는 ‘가장 큰 위력’ 이 나가고,  
<말>로 전달할 때는 ‘두 번째로 큰 위력’ 이 나간다고 했지요?  
가장 전달력이 약한 방법이 <글>로 전달하는 것입니다.

- ◆ <위대한 하나님, 성령님, 성자의 말씀>과  
<메시아 예수님의 말씀>이 ‘성경’ 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

하나님, 성령님, 성자가 직접 말씀하시고,  
메시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

그런데 읽어도 ‘그 내용’ 이  
<뇌, 마음, 생각>에 와 닿는 것이 별로입니다

만일 그 말씀을 직접 말로 듣는다면, 충격일 것입니다.  
감동에 불타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날 것입니다.

그런데 <그 말>이 ‘글’ 로 나타나니, 30%도 효과가 없습니다.

- ◆ 선생도 그러합니다.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이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.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.

하늘의 신부로 변화시키고, 구원하고, 휴거시키는 말씀입니다.

그런데 <그 말>을 ‘글’ 로 써서 전하니 효력이 별로 없고,  
감동도, 실감도, 불도, 심정도 약합니다.

<말>로 하면 ‘1분’ 이면 하는데,  
<글>로 쓰려면 ‘20분’ 을 써도 다 표현을 못 합니다.

- ◆ 당세에는 ‘몸으로 행하는 것’ 을 보고

‘말로 외치는 것’ 을 듣지만,  
후손들은 ‘기록해 놓은 글’ 만 봅니다.

지금 몸으로 행하는 것과 지금 외치는 것을 ‘녹화’ 해 놓으면,  
후손들도 ‘몸으로 행한 것과 말로 외치는 것’ 을 보면서  
더욱 실감 나게 깨닫고 행할 것입니다.

- ◆ 선생이 없을 때 보고 들으라고,  
과거에 선생이 ‘몸으로 행한 것’ 과  
‘말로 외친 것’ 을 녹화해 뒀습니다.

**성삼위의 말씀을 받은 주인공의 말**은 다릅니다.  
아무도 못 따라잡니다. 세력과 권세가 있습니다.

고로 오래된 자들도, 얼마 안 된 자들도  
선생이 외쳤던 것을 자꾸 보고 들어야 됩니다.

많이 보고 들어야 감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.

- ◆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자들은  
**삼위일체가 이 시대에, 지금, 오늘 하시는 말씀을**  
〈삼위의 육〉을 통해 직접 듣고,  
또 선생이 직접 못 할 때는  
〈선생이 보낸 육〉을 통해 직접 말씀을 들으니,  
정말 복 있는 자들입니다.

그러나 ‘그 말씀을 받아 주는 자’ 를 확실히 알고  
늘 감각을 잃지 말고 ‘그’ 를 생각하면서 들으면,  
훨씬 더 은혜와 감동과 불이 옵니다.

## <전환>

◎ 이제 ‘생각에 대해 깨달아라.

생각은 신(神)이다.’에 대한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.

◎ 어렵게 <글>로 받은 말씀을

<말>로 실감 나게, 능력 있게, 권세 있게,  
감동을 주며 전해 주기 바랍니다.

듣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주신 <삼위일체>를 생각하고  
<이 말씀을 준 선생>을 생각하면서 들으면,  
더욱 실감 나게 은혜를 받으며 듣게 될 것입니다.

## <잠시 쉬었다가>

◎ 먼저 <생각>에 대한 핵을 말씀해 주겠습니다.

★ 사람은 ‘육신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. (자기 몸을 가리키면서)  
고로 <인간 형상의 핵>은 ‘육신’입니다.

이 <육신>은 ‘생각’을 가지고 움직입니다. (자기 몸을 가리키면서)  
고로 <인간 근본의 핵>은 ‘생각’입니다.

★ 고로 사람은 ‘생각’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.

<생각>에 따라서 <행동>하게 되고,  
그 <행동>에 따라서 <육의 삶>이 좌우되고,  
그 <육의 행실>에 따라서 <영혼>이 만들어지고 변화되어  
<영혼의 운명>을 좌우하게 됩니다.

고로 <육계와 영계의 핵 원자탄>은 ‘생각’입니다.

(\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> 중요

★ <육신>은 ‘육’으로 통하고,  
<혼>은 ‘혼’으로 통하고,  
<영>은 ‘영’으로 통합니다.

★ <육신>은 ‘영’과 직접 못 통합니다.

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 
육신인 인간과 통할 때는 이와 같이 하십니다.

첫째, <만물>도 ‘육과 같은 물질’이니,  
하나님은 ‘만물’을 보여 주면서 계시하십니다.

둘째, <사람 중에서 합당한 자의 육신>을 쓰고,  
그를 통해 나타나 역사하십니다.

셋째,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>을 주면서,  
그 생각을 통해 인생들과 통하십니다.

★ <육신>이 ‘자기 혼’과 통하려면,  
<뇌의 생각>을 통해야 됩니다.

<육신>이 ‘자기 영’과 통하려면,  
<혼>이 ‘자기 뇌의 생각’과 연결되어 통해야 됩니다.

★ 이와 같이 <생각>은 육계와 영계의 다리 역할을 하고,  
육 - 혼 - 영이 서로 통하게 하는 송수신기 역할을 하고

삼위일체와 통하게 하는 송수신기 역할 을 합니다. <끝>

- ◆ <생각>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 
<죄>를 짓고 ‘화’ 를 받기도 하고  
<의>를 행하여 ‘복’ 을 받기도 합니다.
- ◆ <생각>만 절대 완전하게 하고,  
<자기 생각>을 ‘삼위일체와 주의 생각’ 으로 무장하여  
누구에게도 틈을 주지 않으면,  
사탄 수백만이 몰려와도 손대지 않고 다 이깁니다.
- ◆ <생각>에 대해서 배우고 연구해야 됩니다.  
조은 목사도 ‘이것’ 을 배우고, 사탄을 다 이겼습니다.

#### <중요 부분>

- ★ <생각>에 따라서 ‘신’ 이 됐다가 ‘인간’ 이 됐다가 합니다.  
<생각>이 ‘신’ 입니다. <생각>이 ‘자기 몸의 신’ 입니다.

그러나 이렇게만 말하면 오해합니다.

<생각>이 왜 ‘신’ 인지,  
<생각>에 따라서 왜 ‘신’ 이 됐다가 ‘인간’ 이 됐다가 하는지,  
이에 대해 잘 이해하도록  
선생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면서 잠깐 설명해 주겠습니다.

(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웃으면서, 여유 있게 설명해 주듯 전해 준다.)

- ◆ 어떤 사람이 ‘선생에 대한 소문’ 을 듣고,

그 소문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내게 물었습니다.

그 소문은 모르니까, 몰라서 하는 말이었습니다.

그는 내게 물었습니다.

“당신은 ‘신으로 쓰이는 몸’입니까? ‘신’입니까?”

선생이 “네. 저는 ‘신’입니다.” 하니, (웃으면서 너스레 떠는 듯 말하기)

그는 “들리는 소문이 맞군요.” 했습니다.

- ◆ 선생은 “내가 왜 ‘신’ 인지 말해 주세요.” 하며 설명해 주었습니다.

“첫째, 사람에게 ‘영’ 이 있습니다. 이것을 믿습니까?” 하니,  
“성경적이니 믿습니다.” 했습니다.

“그렇다면 내게도 ‘영’ 이 있습니까, 없습니까?” 하니,  
“있지요.” 했습니다.

“〈내 영〉은 내 것이지요?”

〈영〉은 ‘신의 존재’ 입니다.

〈그 영〉은 ‘내 육’ 과 일체 되어 삽니다.

그리고 〈혼〉도 있는데, 혼도 ‘신’ 입니다.

〈정신〉도 ‘신’ 입니다. (정신의 ‘신’을 강조한다.)

〈육신〉도 ‘신’ 입니다. (육신의 ‘신’을 강조한다.)

즉 ‘보이는 신’ 입니다.

예수님은 ‘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.’ 말씀했는데,  
〈전능자 하나님의 말씀〉을 절대 믿고 받아들이니  
인간으로서 ‘신’ 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닙니까?” 했습니다.

◆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.

“흔히 ‘신’ 이라 하면 <하나님>을 생각하지 않습니까?

그런데 내가 ‘신’ 이라고 하니까

나를 하나님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으로 압니다.

모르니까, 바보들이나 그리 생각합니다.” 했습니다.

★ 인간에게는 <신>이 ‘세 가지’ 나 있습니다.

영신, 혼신, 육신입니다. 곧 ‘삼신’ 입니다.

그리고 영 - 혼 - 육의 매개 역할을 하는

영 - 혼 - 육의 핵은 ‘생각’ 입니다.

★ <생각>이 ‘육’ 을 행하게 하고,

<생각>이 ‘혼’ 을 행하게 하고,

그로 인해 ‘영’ 과 연결되어 ‘영’ 이 변화되게 합니다.

★ <생각>에 의해 육 - 혼 - 영이 제대로 존재하니,

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<생각>이 ‘신 역할’ 을 못 합니다.

생각이 흐리멍덩한 사람은 <생각>이 ‘신 역할’ 을 못 합니다.

<정신>에 이상이 있으니, 영 - 혼 - 육에게도 이상이 생기고,

<생각>이 흐리멍덩하니, 영 - 혼 - 육도 흐리멍덩한 존재가 됩니다.

★ 그래서 <생각>이 ‘신’ 이 돼야 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 중요 부분

- ★ <신>은 절대 ‘뜻’ 을 두고 요동하지 않습니다.  
‘뜻’ 을 두고 멈추지도 않습니다.

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“나는 정녕코 이룬다.” 하셨습니다.

그래서 <인간>은

신이신 ‘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의 생각’ 을 받아서  
그 말씀대로, 그 생각대로 살아야 됩니다.

그래야 ‘인간으로서 신’ 이 되어 ‘신’ 같이 살 수 있습니다.

그리함으로 성경의 “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 된다.”

하는 말씀을 이룹니다.

- ★ 하나님은 “나는 정녕코 이룬다.” 말씀하신 대로  
<뜻>, 곧 <천지와 인간을 창조한 목적>을 두고  
요동하지도 멈추지도 않으셨습니다.

인생들이 배신해도, 믿다가 말아도, 아예 안 믿어도,  
보낸 자를 핍박하며 옥에 가뒀도, 죽여도  
절대 <뜻, 창조 목적>을 두고 요동하지도 멈추지도 않으셨습니다.

결국 <하나님의 최고로 큰 뜻, 창조 목적>을 이루었습니다.

- ★ <이 시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>을 받아들이고  
<이 시대 구원자>를 확실히 깨닫고 요동하지 않으면,  
‘인간으로서 절대 신’ 이 된 것입니다.

그러면 반대자, 꺾는 자, 유혹하는 자, 악평자가  
10억 명이 됐든지 70억 명이 됐든지, 다 이깁니다.

- ◆ 반대자, 꺾는 자, 유혹하는 자, 악평하는 자들은  
**하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말과 행위**를 합니다.

<강철 같은 정신>과 <삼위를 닮은 신의 생각>을 가지고,  
<시대 말씀의 철장 권세>로  
그 말들을 질그릇 깨부수듯 깨부셔야 됩니다.

- ◆ 섭리인들은 모두 <시대 말씀의 철장 권세>를 받았습니다.

고로 “태양이 멈췄다. 예수님의 육신이 구름 타고 온다.  
육신이 부활되고 휴거된다.” 하며  
정신이상자들이 하는 소리들을  
<진리의 철장 권세>로 모두 질그릇 깨부수듯 깨부수고,  
“옛 역사는 끝났다!” 하며  
하나님, 성령님, 성자의 속이 시원하게 해 드려야 됩니다.

- ◆ 세상을 보면, <종교인들> 중에 정신이상자들이 제일 많습니다.

지구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고  
**우상을 섬기는 자들**이 20억 명도 더 됩니다.

**이단들**은 수백만 명 됩니다.

**비진리를 믿으며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사는 자들**이  
수십억 명입니다.

<정신과 생각>이 ‘정상’ 이 아닙니다.

그러다가 <육>이 죽으면,  
<그 영>이 자기가 전혀 모르는 세계로 가서

영원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. 정말 불쌍합니다.

- ◆ 선생이 하나님과 성자가 주시는 시대 말씀을 받고  
세상에 나와서 외치니,  
기성인들은 각종으로 따지고 100가지 이유를 대면서  
“그것이 아니다. 그것은 네 주장이다.” 하면서 나를 무시했습니다.

그래도 선생은 그들의 말을 100분의 1도 안 믿고,

“까불지 마.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, 그리 안 하지.

너희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가다가 깨지고,

내가 말하는 진리, 곧 하나님과 성자가 내게 주신 진리만 남는다.”

하고 절대 꺾이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굳건했습니다.

<신의 말씀>을 받았으니 내 생각이 ‘신’ 이 되어  
신과 같이 <뜻과 진리>를 두고 절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.

- ◆ 결국 그들의 말은 ‘거짓’ 이 됐습니다.  
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

구름 타고 온다고 했던 자도 오지 않고 허무하게 끝났습니다.

앞으로 100년, 1000년을 더 기다려도 그렇게는 안 옵니다.

믿었던 대로 안 되니, 그 신앙도 파괴되었습니다.

정말로 불쌍하게 됐습니다.

- ◆ <시대 말씀>을 100% 믿고,  
<자기를 구원할 자>를 알고 100% 믿고  
말씀대로 행하며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.

그래야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‘그 육과 생각’에 좌절하십니다.

- ◆ 선생이 처음에 기도하고 조건을 세운 후  
하나님과 성자께 <시대 말씀>을 받은 후에  
동네 목사들과 신학교를 다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.

“육신 부활이 아니다. 영의 부활이다.

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다.

시대적으로 태양이 멈춘다고 믿는 때였기에

태양이 멈췄다고 한 것이지,

실상 하나님이 함께하여

시간적 표적을 일으켜서 승리했음을 말한 것이다.” 했습니다.

이 말을 듣고 그들은

“그렇게 가르치면 예수님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.” 하고

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혼냈습니다.

그때 선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.

“참 아기들이네.

내가 커서 목회하면, 너희가 목회한 것을 다 합쳐도

내 앞에는 빙산의 일각이야.

내가 살아 있을 때, 반드시 그 모습을 보여 줄게!” 했습니다.

당시 영계에서 그들의 앞날을 보니,

몇백 명의 성도만 모아 놓고 목회하고 끝났습니다.

★ 선생은 말대로 됐습니다. 말대로 해내고야 말았습니다.

역시 <생각>이 ‘신’입니다.

오직 하나님, 성령님, 성자입니다.

오직 하나님, 성령님, 성자의 말씀을 받아서 행하니,  
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.

오직 하나님, 성령님, 성자의 뜻을 이루는 역사입니다.

시간이 갈수록, 날이 갈수록

<하나님과 성자의 계획>은 그 말씀대로 실행됩니다.

- ◆ 형제들도, 동네에서 난 목사들도 나를 믿고 따랐으면,  
지금도 외치고 다니면서 귀히 쓰이고  
시대 구원도 받고 휴거도 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?

내가 스스로 ‘신’이 되어 잘못되게 행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.  
신령하지 못하니 몰랐던 것입니다.  
모르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고, 그러니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.

- ◆ 결국 구시대 기성인들이 불신하고 안 따라오니,  
아무것도 몰랐지만 시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따라온 자들이  
**그들이 받을 영광**을 다 받게 됐습니다.

영원히 그 영광을 받게 됩니다.

- ◆ 구시대인들은 봉사라서 눈 뜬 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.

사람들이, 기성인들이, 사탄이, 악령자들이 막아도  
이 <섭리역사>는 ‘하나님 최고의 목적을 이루는 새 역사’ 라

갈수록 번창하고 창대하게 됩니다!

그러나 <구시대 저 기성>은  
차를 사용할수록 낡고 망가지듯 갈수록 망가집니다.

어서 빨리 <시대>를 증거해야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사랑하는 여러분,  
여러분은 절대 <생각>이 ‘철강’ 같이 강해야 됩니다.

<생각>을 ‘삼위일체의 생각’ 으로 무장해야 됩니다.

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말고,  
어떤 말에도 요동하지 말고, 끝까지 가야 됩니다.

- ◆ 생각을 강하게 하고,  
절대 요동하거나 꺾이지 말고, 끝까지 따라오면  
구원자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 
<구원>도 해 주고 <휴거>도 시킬 수 있습니다.

- ◆ <생각>이 ‘신’ 이 되어 다 다스려야 됩니다.

<강력한 시대 말씀>과  
<삼위의 생각>과 <주와 일체 된 생각>으로  
사탄과 악을 물리치고, 비진리를 물리치고,  
온전치 않은 말들을 물리치고,  
자기 육적인 생각을 물리치고,  
세상과 이성으로 흐르는 생각을 물리치고,

못 하겠다는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.

- ◆ 사람은 <생각>으로 ‘죄’를 짓고 ‘이성’에도 빠집니다.

<생각>으로 ‘하나님, 성령님, 성자’를 만나기도 하고,  
아니면 불신하기도 합니다.

<생각>을 온전히 해서 말씀을 믿고 행하여  
자기 영을 변화시켜 휴거를 이름으로 ‘천국’을 차지하기도 하고,  
아니면 <생각>에서 시대 말씀을 불신하여  
자기 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‘지옥’에 가게 하기도 합니다.

고로 <생각>이 그리도 큼니다.

- ◆ <생각>에서 믿느냐, 안 믿느냐가 좌우됩니다.

<생각>은 자유의지입니다.

고로 믿느냐, 안 믿느냐도 자유의지입니다.

다만,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됩니다.

진리가 맞는데 자기가 안 믿으면

자기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‘사망’으로 가면 되고,

자기가 믿고 따르면

그에 대한 책임과 대가로 ‘생명권, 천국’으로 가면 됩니다.

- ◆ 하나님도 <인간의 생각>을 무력으로 100% 주관하지 않으십니다.

양심을 주어 깨닫게 하고, 만물을 보이며 깨닫게 하고,

구원자를 보내 시대 말씀을 주어 깨닫게 한 후에,

- 인간이 <자기 생각>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사는지,

- 아니면 <자기 생각>을 하나님께 맡기고  
<하나님의 생각>대로 행하면서 자기 책임 분담을 하는지 보십시오.

<자기 생각>을 하나님께 맡기고,  
<하나님의 생각>대로 행하면서 자기 책임 분담을 하는 자만  
하나님이 그 ‘생각’을 100% 주관하여 지키시고,  
그 ‘육신’을 자기 몸으로 쓰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.

- ◆ <의로운 강한 생각>으로 인해 ‘자기 육’을 가지고 행하여  
<자기 육의 행실>로 인해 ‘자기 영’을 휴거시켜  
<천국 황금성>에 가게 합니다.

그리고 <주와 일체 된 강한 생각>이  
자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<휴거의 차원>을 높이게 하고,  
그리함으로 ‘자기 육과 영의 운명’을 좌우시킵니다.

- ◆ 잘못된 생각, 불의한 생각, 이성을 향한 생각, 자기중심적 생각을  
<주와 일체 된 강한 생각>을 가지고 깨부숴야 됩니다.

- ◆ <생각>은 ‘무기’입니다.  
<생각>에 따라서 ‘천재’도 됩니다.  
<생각>에서 ‘환상’도 봅니다.  
<생각>하기에 따라서 ‘만물’도 새롭게 보게 됩니다.  
<생각>하기에 따라서 ‘천 리’도 내다봅니다.

그러나 <생각>을 잘못함으로 ‘그릇된 인식’도 하여  
**오해**도 하고, 그로 인해 **해**도 당하고, **화**도 당합니다.

- ◆ <생각>을 잘못하면 자기가 몽땅 해를 받으니

꼭 확인하고 생각하고 행해야 됩니다.

<하나님의 섭리역사>를 확인하지도 않고  
<생각>을 잘못하여 막고 옥하고 해를 주는 자들은  
결국 그 <잘못된 생각>으로 인해 몽땅 해를 받게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<생각>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주고,  
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. 잘 들어요.

◆ 선생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물었습니다.

“인간은 아이큐가 평균 120 정도이니,  
지능이 낮아서 자꾸 사고가 나서 다치고 죽습니다.

왜 인간의 지능을 그렇게 낮게 창조하셨습니까?” 했습니다.

이때 답을 주셨습니다.

“자동차의 속도계를 보아라.

시속 200~300km까지 달리도록 표시되어 있지 않냐.  
그런데 운전할 때는 시속 120~200km까지만 달린다.

엑셀러레이터를 밟아서 ‘엔진’에 가속이 붙으면,  
그 차가 달릴 수 있는 한계까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.

<인간의 뇌, 생각>도 그러하다.

<인간의 지능 지수>는

300, 500, 1000, 2000까지 차원을 높일 수 있다.

그런데 사람들이 <정신과 생각>을 집중하지 않으니,  
아이큐 120~160까지밖에 안 나오고,  
그 수준으로만 생각을 사용하는 것이다.

생각을 집중해라.

생각을 집중할수록 <신의 생각>이 되어 다스린다.

그러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.

사고가 안 나려면, 어떤 일을 하든지

정신과 생각을 집중하여 전능자 삼위와 일체 되어라.

이것을 가르쳐 주어라.” 하셨습니다.

- ◆ 아무리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신령한 말씀이라도  
아무리 지식과 지혜의 생명의 말씀이라도  
<자기 생각의 차원>이 낮으면, 말씀이 뇌 속에 안 들어갑니다.

- ◆ 아이큐 200은 돼야 위대한 하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갑니다.  
그런데 아이큐 200이 나오니까?

아이큐 200이 되는 방법!

즉시 ‘생각을 집중’ 하고 ‘삼위와 일체 되는 것’ 입니다.

- ◆ 기도를 깊이 하고 생각을 집중하여 영계에 들어가면,  
아이큐가 수천만이 됩니다. 어떻게요?

<육>이 아닌, <영>이 보고 듣기 때문입니다.

- ◆ <영>은 ‘신적 존재’ 라서 엄청납니다.

고로 매일 ‘휴거된 자기 영’ 을 부르면서,

<자기 육의 생각>을 ‘영의 생각’ 과 일체 시켜야 됩니다.

또한 매일 ‘하나님, 성령님, 성자’ 를 부르고,

매일 ‘말씀’ 을 잊지 않고 뇌에 새기면서

<자기 생각>을 ‘삼위의 생각’ 와 일체 시켜야 됩니다.

그래야 <생각>이 위대해지고 강철같이 강해집니다.

- ◆ 하나님 생각, 성령님 생각, 성자의 생각, 주의 생각은  
어마어마합니다.

고로 <그 생각>을 ‘자기의 중심’ 에 꽂고 살아야 됩니다.

그리함으로 사탄과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,

악의 세력과 나쁜 생각들을 완전히 물리치고,

절대 <뜻>을 두고 요동하지 않고,

날마다 <성삼위를 사랑>하고 <주와 일체> 되어

<휴거의 삶>을 살면서 <휴거의 차원>을 높이기를 축원합니다.